

<工場노우트>



金 弘 俊
 <> 三洋타이어工業株式會社
 品質管理課長

安全이라하면 누구나 지켜야할 일임은 本然의 자제인 사람으로 하여금 의식할 수 있는 평범한 事實이라 생각되는 바이다.

무엇 보다도 生存競爭이 熾熱한 現時點에서 어찌 不具의 몸으로 他人과 陰陽으로 對決하여 勝利者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于先 自身の 機械取扱이 경솔하였거나 不注意한 탓으로 치밀하게 組織化된 몸의 一部를 순간적으로 잃어 버리게 된다면 于先 상처가 아물 때 까지 느껴야할 自身の 苦痛은 물론 설령 상처는 나았다 하더라도 自身만이 간직 하여야할 마음의 상처 또한 他人에게 보여줄 수 없는 不具者의 설음이 항상 自身の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더우기 前述한 바와 같이 社會生活을 함에 있어서 熾烈한 生存競爭에서 敗北者의 설음도 또한 크다하지 않을 수 없겠다.

以上과 같은 點들을 들면서 安全에 더욱 더 힘써 주어야 하겠다는 것은 물론 再參 念頭에 두어야 했음을 筆者는 強調하면서 數年間 타이어工業에 從事하던중 느껴진 바 또는 經驗한 바에 따른 安全個所 및 實例를 들어 가면서 글월을 엮어볼 까 한다.

勿論 會社特徵이나 諸般 機械設備 및 安全豫防事項이 다르겠으나 大體의인 部面은 大同小異하리라 보면서 마디마디 풀어 가고자 한다.

于先 大體의으로 遵守해야할 全般的인 事項을 記述하고 다음 作業部分別 安全事項을 記述코자 한다.

1. 精神의 淨化

人間인 境遇에는 大體의으로 共通된 點들이 있다고 본다면 설령 人體를 構成하고 있는 몸의 構造에단 局限된 것이 아니고 感情面에 있어서도 비슷하다는 것은 日常生活을 통하여 잘 體驗되는 事實이다.

一例를 든다면 아침에 出勤時 집에 食口 特히 妻子를 갖고 있는 분들의 境遇는 妻와 爭爭이 있었다고 하면 하루종일 職場內의 氣分이 언짢은 것은 두말할 바 아

니고 또한 새벽길에 女人이 自己의 앞길을 橫斷하였다 고 하는 境遇에도 오늘은 재수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게되는 것이 옛날부터 우리 周邊에 通例의인 貫習으로 오늘날 까지 내려왔음은 두말할 바 아니다.

精神淨化가 必要하다 하면 于先 職場生活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精神的인 安定이 必要되는 것으로 作業을 雜念없이 充實히 履行할 수 있는 與件中에서 가장 比重이 큰 要件이라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現實이라 본다.

그렇다면 于先 作業者로 하여금 마음의 安定을 가져와야할 點들은 여러가지 있었으나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예를 들고자 한다.

① 家庭不知

家庭不和가 생길 수 있는 것은 多種多樣하리라 본다. 그중에서도 特히 經濟水準이 낮은 國內實情으로 보아서는 勞動의 代價가 적음으로 생기는 家庭不和가 作業者가 作業途中 充實히 作業에 임할 수 없고 또한 安全을 소홀히할 수 있는 境遇가 생기는 것을 허다히 엿볼 수 있다.

一例를 들면 多情한 親友의 會社에서 일어난 일인데 親友를 通해서 들은 바에 依하면 K라는 作業者가 作業途中 機械에 말려들어 왼팔을 切斷하지 않으면 안될 境地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作業者를 通해 作業에 不注意性을 追窮한 結果 給食問題解決對案을 問議해 오는 自己 妻와 出勤하는 사람에게 아침부터 氣分나쁘게 이야기 한다는 식으로 爭爭이 있었다고 하여 作業이 始作될 때부터 精神的인 面에서 安定을 가져올 수 없었다는 본인의 말을 引用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② 出勤과 同時에 上司로 부터 追窮당했을 境遇

이와같은 境遇는 當然히 自己自身이 當해야할 追窮이면 首肯이 갈 것이고 수정을 가하려고 努力에 努力을 거듭해야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境遇도 當할 수 있

는 것이기에 神이 아닌 人間生活이라 보겠다.

하나 좋은 氣分으로 本然의 자세에서 作業에 임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追窮에 心的인 충격을 받고 精神面에 착란을 일으킨다면 作業者가 지켜야할 作業標準의 遵守事項이 회박하여져서 品質面은 勿論 機械의 危險度에 관심을 둘 사이도 없이 순간적으로 영영 생을 意識할 수 없는 몸이 되거나 不具의 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과 같은 ①②項은 作業하는 作業者 自身들이 注意에 注意를 거듭 하여야할 것은 勿論이겠으나 經營層이나 作業 監督機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할 일이다.

以上과 같이 본다면 精神的面과 聯關性이 될 與件들의 除去에 全力을 加해야할 것이며 還境과 條件을 구비시켜 作業시킴이 가장 賢明한 方法의 經營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스위치調整時 注意

스위치라 하면 電氣(電子)를 모우터, 機械 및 機器에 순간적으로 傳達시켜 機械의 作動, 熱 및 光 其他 日常生活面의 諸般用途에 適用시키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는 事實은 스위치를 取扱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는 動作의 目的이라 보겠다.

현재 電氣는 事情없다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通用되고 있는 어휘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바 特別히 生産工場의 境遇에는 動力의 資源으로 없어서는 안 될 必須用品임은 再言할 必要조차 없겠다.

그렇다면 스위치 取扱時에 特別히 注意를 要하지 않으면 안될 事項을 實例를들어 記述하여 보기로 한다.

이것은 지난 66年 夏節에 있었던 일로 대개 工場의 境遇는 高壓用 100 Hp 以上の 모우터를 使用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때는 200 Hp 모우터의 境遇로서 會社에서 延勤을 하여야만 作業에 支障이 없을 것으로 豫想하고 作業者에 延勤을 指示하였던 事實이 있었다.

현재 晝間作業에 시달렸던 作業者는 때가 오면 취해야 하며 피로도 회복시킬겸 잠자리를 찾고 다녔던바 200 Hp 모우터와 機械뿌리를 連結하는 V형벨트 (10列 幅 60 cm 程度) 사이에 自身의 몸을 安着시켰던 것이다.

◇……과연 높고보니……◇

◇……고무 벨트 인지라 ……◇

◇……Cushion 이 좋았고……◇

◇……高級 침대와 같이 ……◇

◇……편안하였기에 깊은잠에…◇

◇……잠졌던 것이다. ……◇

그런데 會社 事情에 따라 아침 早出한 部署가 있었다. 早出하여 機械責任者가 스위치로 넣으려고 機械의

周圍를 살펴보았던바 벨트 사이에서 사람이 잠들고 있는 것이 發見되어 놀란 가운데 잠을 깨우고 機械를 動作시켰다는 事例였다. 또한 機械는 恒常 스위치位置를 스위치操作者로 하여금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位置에 備置하여야겠다는 것이다.

事例를 든다면 정지상태에 놓여있는 機械를 補修할 目的으로 修理工이 修理作業에 임하고 있었는데 周圍 機械의 騒音으로 因하여 스위치를 넣지 말라는 修理工의 말을 理解치 못하고 벽 건너편에서 스위치操作者가 스위치를 넣음으로 因하여 重傷을 입게된 實例를 들면서 스위치의 位置는 恒常 스위치의 接續에 따라 動作될 機械가 보일 수 있는 곳에 裝置하여야겠다는 것을 再強調하고 싶고 必히 機械를 動作시킬 때는 動作될 機械周圍를 살펴보고 스위치에 손을 댈 것을 付託하는 바이다.

3. 機械稼動中 補修嚴禁

稼動되고 있는 機械는 調査者의 調整에 依하여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當然한 事實이며 움직이고 있는 機械는 事情없다는 것도 또한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좋은 事例로는 稼動中인 機械에 補修目的으로 自身의 重心을 잘 잡을 수도 없는 天井에서 作業途中 作業服이 回轉하고 있는 “샤아프트”고리에 걸려 “샤아프트”와 함께 公轉하였을 순간 스위치를 잡았으나 貫性에 依하여 機械는 4회나 더 回轉하였으며 當事者는 팔에 二個處의 骨切과 발은 타박상을 입은 것도 또한 事實이며 回轉하고 있는 3本 “캘린더”(Calender)를 청소할 目的으로 上下 로울球가 물고 들어가는 方向에 손을 댈 것이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므로서 切斷해야만 했던 것도 또한 現實에서 目擊할 수 있었던 事實인 것이다.

이와같이 보기를 든다면 事例에 있었던 事實도 많이 있겠거니와 于先 이와같은 點에도 關心을 들으로써 危險을 벗어날 수 있다는 事實을 또한 添加해 記述하고 싶다.

4. 作業靴 作業服은 簡便하게

作業者는 恒常 作業服을 端正하고 簡便하게 입어야 할은 再言할 必要조차 없는 이야기겠다.

하나 作業者가 아니더라도 作業現場을 다녀야할 일이 있다면(特別히 生産工場의 境遇는 全般) 服裝은 簡便하게 가짐이 危險時 安全을 기하는데 좋은 일이 될 줄로 안다.

安全 보다도 工場管理部面을 몇해간 다루고 보니 自然히 安全管理도 無視할 수 없기에 安全面을 究想해본 結果 결국 生産工場의 境遇 作業場을 다녀야할 必要性을 느낀 見學者 또는 用務者는 必히 服裝을 簡便하게

입던가 그렇지 않으면 案内者が 説明하는 安全(危險)에 對하여 最善을 다 해주어야 할 것은 勿論 案内者亦是 細深한 部面까지 説明에 説明을 加하고 引導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닐까 본다.

특히 筆者는 當 工場에서 見學者를 主로 인솔하는 責任이 부과되어 있는데 見學者에게는 于先 會社의 內歷을 說明하고 난 後에 現場內는 禁煙이며 危險個所 說明과 特히 機械에 손을 대어서는 안된다는 點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 習性화된 것으로 안다.

그럼 지금으로 부터 나의 經驗에 依해 當面했던 服裝 및 作業靴의 端正에 關하여 一例씩을 들고 다음 事項으로 넘어가려 한다.

이야기는 멀지않은 昨年 1967年度의 例이다.

外部로부터 機械를 注文받고 製作해 왔던 一個 商人의 이야기이다.

이 商人은 작은 鐵物工場에서만 經驗을 갖고 있던 사람인지라 服裝의 簡素化는 되어있을리 없었다.

현재 접잡은 外出服으로 좁은 場所를 最大限으로 利用하고 있는 旋盤作業室에 들어왔었는데 마침 뿌리가 많이 달린 튜우브用 물드를 걸고 加工中 이었다.

不注意하게 特히 安全에 關心없이 自己 自身の 所要目的(納品物件에 對한 缺點)만을 찾아 생각에 잠겨 闊步하였던중 自身도 모르는 사이에 튜우브機 뿌리에 옷이 걸리게 되었을 순간 재빠른 예감에 옷을 손으로 치므로 옷만이 찢겼으며 生命의 危險은 免할 수 있었던 것이다.

作業靴의 境遇를 든다면 아래와 같은 事例가 있다.

夏節이 되고보면 特히 蒸氣를 많이 消耗시키는 部署의 境遇는 스리퍼를 많이 着用하는 習性이 濃厚하다. 물론 東洋人 뿐 아니라 어느 國民에게나 흔히 있을 수 있는 “무좀”때문에 또한 발에 膿나는 것을 피하려고 努力하고 있음은 人間本然의 자세라 하겠다.

현재 “스리퍼”를 着用한 作業者가 “물드너트”를 조이던중 거치장스런 作業靴 때문에 뒤로 넘어져야만 했던 것이다. 넘어진 것 까지는 좋지만 이로 인하여 人間の 操縱部인 腦神經을 건들였으니 이도 또한 腦진탕을 일으킬 要因이 아니라 할 수 없겠다.

以上과 같이 安全에 對한 問題를 떠나서라도 于先 作業能率 및 品質向上面을 考慮하여서라도 特히 幹部側에서는 이 點들을 철저히 團束하여야 할 事項인 줄 안다.

本社の 境遇는 1966年度 初부터 統制된 作業服과 作業靴의 着用으로 이러한 缺點들은 尠혀 없는 現象인 것으로 본다.

5. 弄談 및 雜談 嚴禁

作業途中에 弄談이나 장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工場의 境遇나 同一한 것이다.

弄談이나 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安全을 해친 일이 있었다기 보다 이점은 製品과 關聯된 問題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安全을 해치는 일이 尠혀 없었다는 것도 또 한 아니다.

筆者의 經驗에 依하면 불과 며칠간의 치료로 無事히 本然의 姿態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지만 더욱더 이와같은 問題를 擴大시켜 생각한다면 親友와 弄談한 것이 지나치므로 因해서 雙方은 힘의 對決에 까지 이르게 되고 이러다 보면 弱者이거나 境遇에 따라서는 強者도 處世를 위해 도망가는 일이 있을 것인바 相互間에 弄談의 연장인 장난으로 現場內를 쫓고 쫓겨야만 하는 境遇가 생기게 될 것이며 쫓고 쫓기는 사람은 安全을 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 위험한 機械속에 自身の 몸을 파묻는 境遇가 생길 것이 염려되므로 지나친 弄談이 장난이 되고 장난 끝에 鐵棒으로 相對方의 頭部를 때리므로써 며칠간의 치료 내지는 不具者를 만드는 등의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點들은 우습게 여겨 다루어질 일들 같으나 自身の 安全을 위해서는 恒時 慎重을 기하여 생각해야할 問題들이라 생각된다.

6. 部署離脫 嚴禁

作業者가 作業場所를 離脫한다는 것은 作業能率上 統制되어야 할 일이다. 特히나 成型作業者가 同期生을 찾아 위험성 많은 로울 作業部署에 갔을 境遇 回轉하고 있는 로울과 감겨진 고무의 신기성에 全혀 經驗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고무에 칼을 대었던 것이 우환이 되어 손이 고무와 함께 딸려들어 가므로써 切斷해야만 했고 一生을 두고 不具者의 서름을 간직하지 않으면 안되는 切절한 境遇가 自身에게 우연히 닥쳐 오는 것이므로 이 點도 또한 安全이란 面을 考慮하여 注意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大體의으로 본다면 入社한지 얼마 되지않은 사람들의 境遇 安全을 소홀히 하며 또한 自身の 作業場所를 離脫하는 傾向이 濃厚한 것이다.

特히 新入 從業員의 境遇 安全管理教育에 더욱 힘을 傾注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7. 機械取扱에 早速한 熟達

機械는 人間生活에 便利를 圖謀하기 위하여 人間이 만들고 所要目的에 利用하고 있다.

人間은 知慧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自己의 知慧에 속고 있다.

一例를 든다면 物件 및 사람을 所要 目的地까지 迅速하고 便利하게 運搬해 주고 있는 自動車의 境遇 사람이 만들었고 움직이는 것도 人間の 知力에 依한 것이지만 結局 走行中 謀機械 部分品の 作用不能으로 진복하였다는 境遇를 우리의 周邊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現象이다. (運轉未熟의 境遇에 더욱 甚하다)

이때에도 사람이 機械를 만들고 操縱하면서 機械에 달려 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우리가 日常生活에 使用하고 있는 機械의 境遇도 마찬가지로 現象으로 생각할 수 있다.

自身이 取扱하고 있는 機械에 熟達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機械에 달려들려 憂慮가 있는 것이니 于先 機械取扱에 熟達되어야겠다.

前述한 바도 있으나 大體의으로 事故率이 높은 것은 機械取扱에 未熟한 新入從業員의 境遇가 統計的으로 보아 높다는 것이다.

이 點도 安全을 위하고 兼하여 作業能率을 向上시킨다는 目的에서 機械取扱에 早速한 熟達이 必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8. 機械의 危險個所 把握

自己가 取扱하는 機械 및 自己 周邊에 裝置되어 있는 機械는 어떤 部分이 가장 危險性이 있는가를 恒時 把握하고 있음이 또한 必要事項이라 하겠다.

그러면 簡略하여 作業 區域別로 危險性이 있는 部分을 記述해 본다.

1) 糊引作業 部署

- ① 揮發油 取扱에 따른 揮發油 中毒
- ② 糊引機 引火로 인한 爆發

2) 精練作業部署

① 110 kg 程度의 重量을 가진 生 고무 運搬 및 切斷時

- ② 모우터(motor) 周邊
- ③ 모우터(motor) 뿌리용 “키” 및 其他 샤아프트(shaft)에 固着된 “키” 周邊

④ 로울球 周邊

3) 캘린더 作業部署

① 모우터(motor) 周邊 및 모우터(motor) 뿌리 “키” 周邊

- ② 캘린더(calender) 球 周邊
- ③ 캘린더(calender)에 코오드(cord) 注入部分
- ④ Topping cord 卷取機 周邊

4) 裁斷作業部署

- ① 裁斷用 칼 周邊
- ② 裁斷機 벨트 運轉用 모우터 周邊
- ③ 裁斷機 넥기어 周邊

5) 成型作業部署

- ① 成型棒 作業附近
- ② 成型 Former 交替時

6) 加硫(加黃)作業部署

- ① 蒸氣(steam) 파이프 (pipe) 周邊 ※(몰드 周邊)
- ② 內壓用水 파이프(pipe) 周邊, ※(몰드 周邊)
- ③ 補助탱크(tank) 周邊
- ④ 에어백 引出機 周邊
- ⑤ 팽창기 周邊
- ⑥ 푸란저 펌프 周邊
- ⑦ 에어(air) 저장탱크 周邊

7) 再生作業部署

- ① Buffing 機 周邊
- ② 再生 타이어 加黃用 몰드 周邊

8) 튜우브 作業部署

- ① 튜우브 切斷機 周邊(高溫切斷機)
- ② 튜우브 조인트機 周邊
- ③ 튜우브 加黃用 몰드의 蒸氣 호오스(Hose)

周邊

以上과 같은 點들이 大體의으로 타이어工場에서 注意를 傾注하여 作業에 任해주어야할 危險個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9. 夜間 作業과 停電으로 因한 消燈時

어느 會社의 境遇나 夜間作業 途中 消燈(停電으로 因하여)이 된다면 平時보다 더 바빠지는 것은 通例이다.

實例를 든다면 로울러에 配合고무를 물리고 熟入作業 途中 停電이 되었다고 假定한다면 고무의 Scorch 現象을 防止하기 위하여 電池를 찾아 四方으로 뛰어다니 할 境遇가 往往생길 것이다. 밝은 곳에서 作業하다 갑자기 消燈이되면 더욱 周圍의 지척을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共通된 生理的인 現象이라 보겠다.

不注意하게 뛰어 다니다거나 周圍에 危險個所를 파악치 못하고 다니다 障害物에 부딪쳐 負傷을 입는 일이 있다면 이도 또한 安全觀念이 희박한 處事라 보겠다. 이 點도 우리는 恒時 注意를 갖고 安全에 對備함이 必要할 줄로 안다. 지금까지는 로울러 作業部署의 境遇를 들었으나 成型作業, 裁斷作業, 비드作業등 作業部署는 停電과 밀접한 關聯性이 있다고 볼 수 없겠으나 押出作業은 精練作業과 大同小異하겠고 加黃作業에 있어서는 品質保證 目的에 임각하기 위해 各個 몰드의 게이지(gauge: 內壓 및 蒸氣壓) 狀態를 一定하게 維持하기 위해 右往左往 바쁘게 서두르게 된다.

이런 點에 對하여는 品質과 安全을 考慮하여 事前에

對備策을 講究함이 賢明한 方法이라 하겠다.

10. 配合劑 取扱에 對하여

配合劑를 取扱함에 있어서 配合劑가 人體에 害가 없다는 것은 本人 自身이 짧은 期間이나 體驗했던 量의 藥品 및 多量 取扱해야 할 카아본(carbon)을 다루었던 經驗에서 믿어지는 바라 하겠다. 허나 그 反面에 全의 人體에 支障을 주지 않는다고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實例를 든다면 促進劑 티티(T.T)를 多量다룬 낱은 退勤할 무렵이면 氣分이 침울하며 목구멍의 不便을 느낀다는 것이 本人이 겪은바 한 토막의 體驗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促進劑 T.T 만이 그와같은 現象을 招來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促進劑 엠(M)의 境遇도 大同小異하나 多少 輕하다 할 뿐이다. 勿論 各自가 所有하는 體質에 따라 配合劑에 對한 耐久력이 多少 다르다 하겠으나 生活樣相이 비슷한 韓國人의 境遇는 相互 相通한 點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配合劑도 人體에 多少 影響을 미치는 것이라는 觀點 밑에 本欄에 記載해 본 것이며 特히 本人의 境遇는 先輩任들의 말에 따라 配合後 適當量의 술(막걸리)과 食事時 脂肪質이 많은 豚肉을 服用하여 抵抗力을 키웠다고 記載해보고 싶으며 勿論 이방법은 初步의이고도 非科學的 方法이겠으나 賢者諸位께서도 이미 실천하고 있으리라 믿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勸하고 싶은 心情이다.

11. 過勞에 따른 體質弱화

사람은 機械가 아니며 感情 即 氣分에 依하여 活動하는 動力源이라 하겠다. 설령 機械라 하더라도 過負荷가 걸린다면 停止 또는 故障을 招來함은 勿論 故障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그 機械 자체의 能力減退는 豫想外로 甚하여진다는 것은 우리의 日常生活을 通해 理解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사람도 機械와 같다고 보면 自己體質(體力)에 알맞는 作業場에서 滿足한 氣分으로 作業에 任한다면 모르겠는데 힘에 疲하고 趣味와 相反된 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첫째 : 날이 갈수록 體質의 弱화는 물론

둘째 : 作業能率의 低下가 同伴된다고 보겠다.

그렇다면 入社當時부터 適性檢査를 철저히 行할 것이며 人員配置도 이 點을 充分히 考慮하는 便이 賢明한 方法이라 하겠다. 機械의 境遇도 마찬가지겠으나 當初에 “機械의 質을 잘 들여야 한다”는 通常語가 우리 周邊에 있듯이 이는 곧 人間에 比한다면 熟練段階를 이야기 하는상 싶다.

그렇다면 當初 適材適所에 適性體能所有者를 配置

하지 않는다면 어느 期間後에는 作業場을 交替해 주거나 심지어는 退社(體質의 弱화로)시키지 않으면 안될 境遇에까지 到來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 配屬된 從業員은 自身의 體格에 比較하여 持久力을 가질 수 없으면 그 作業場에서 技術을 習得하기 前에 交替해 줄 것을 上司에게 建議하여 善策을 바라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自身의 體質弱화는 勿論 어느 程度 熟達된 後 그 場所를 물러난다면 經營面으로 보아서도 損失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熟達시켜야 하니 이도 또한 作業에 支障을 招來한다는 事實은 否認할 수 없기 때문이다.

結論적으로 記述한다면 自己의 體力에 맞지않은 即 自己自身の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連日 繼續한다는 것은 過勞를 뜻하는 것이며 過勞로 因하여 體質의 弱화를 招來하는 일은 會社나 自身을 위해 充分히 考慮해 주어야 할 일이다.

12. 沐浴湯에서의 安全

여름이 되면 避暑目的으로 바다 또는 江으로 나가는 일이 많다.

담담한 作業場을 떠나 넓게 펼쳐지는 바다의 光景과 끝없이 바라다 보이는 水平線을 굽어 보면서 시원한 空氣를 呼吸할 때의 氣分은 天國에서나 맛 볼 수 있는 輕快한 순간이라고나 表現할까?

우리는 바다나 江에 나가면 水泳에 能熟한 사람은 勿論이거니와 비록 물에는 맥주병이란 별칭을 갖는 사람이라도 물속에 들어가기를 願하는 것은 틀림없는 人間의 心理인 것이다.

그렇다면 于先 물속에 들어가기 前에 準備運動을 해야한다는 것은 初步의인 常識일 것이겠고 다음 段階는 물을 손, 발, 머리 및 가슴등의 순으로 추기고 물속에 들어 가는것도 또한 習慣으로 키워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沐浴湯속에 들어갈 때도 같은 방법으로 于先 全身을 初段階로 물에 추기고난 뒤에 浴水에 몸을 담구는 것이 必要할 것 같다.

흔히 듣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沐浴湯속에서 心臟마비로 인하여 人命의 被害를 입는다는 事實은 現實임에 틀림없다. 이 點도 考慮하여 沐浴에 임하였으면 좋겠다.

13. 配電室 出入

우리는 日常生活을 通해 電氣의 惠澤을 많이 입고 있다. 그러나 電氣에 對한 常識이 희박하다는 것 만도 自他가 共認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家庭에서 使用하고 있는 低壓線(100V)에 對해서도 함부로 取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現時點에서 우리에게 逢着된 電

氣常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高壓(6,600 V 또는 3,300 V)를 주로 取扱하는 配電室內에 함부로 出入한다는 것은 큰 危險을 招來하는 일이라 하겠다.

특히나 電氣用部品은 모두 初歩者가 볼 때는 一種의 “악세서리”와같이 보이며 호기심에 만져 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것은 本人自身이나 어느 누구의 心理的 作用도 同一할 것이다.

이 事例는 어느 生産工場의 境遇인데 속칭 電工으로 勤務하고 있는 사람이 電氣器具 修理目的으로 配線을 確認하던 途中 “비이티”에 “휴즈”가 끊어 지면서 “비이티”가 爆發하는 순간 發生된 熱과 光에 依해 顔面에 火傷을 입어 二週間의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事實을 記憶하고 있다.

勿論 配電室같은 境遇는 危險表示가 철저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安全이란 教育過程을 통해 配電室에 對한 危險性을 크게 強調하지 않는 것이 現在安全 管理를 擔當하고 있는 本人의 境遇라 보겠다.

本 原稿를 쓰게된 機會를 始點으로 하여 앞으로는 이 點을 注意깊게 觀察하여 安全을 위한 教育의 좋은 機會에는 比重을 크게보고 다루고 싶다.

14. 防 火

“불조심”하면 입버릇같이 되어있다.

火災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것은 紙上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事實이었다.

火災로 因한 國家財産의 損失은 勿論 個人財産 나아가서는 人命의 被害가 同伴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生産工場 특히 타이어製造工場의 境遇는 引火質物을 溶劑로 하여 많이 取扱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機械補修目的에 따른 酸素 및 電氣熔接等이 隨伴함은 勿論 動力源인 電氣을 많이 使用하고 있으므로 熔接으로 因한 點火電線에서 스파크될 때 點火現象이 往來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防火를 위해 어떤 點들을 對備해야 할 것

인가를 記述해 보고자 한다.

1) 現場內에서 補修目的으로 熔接의 必要性을 느낄 때는 最少限度 引火質物은 作業場所에서 半徑 10 m 밖에 除去할 것.

2) 糊引室內에는 引火性 溶劑가 많이 있음은 勿論 溶劑의 蒸發로 因하여 發火하기 쉬우므로 “성냥 및 라이타” 등의 煙대를 嚴禁할 것.

3) 用途와 工場形便에 따라 다르겠지만 現場內에 引火性 物質을 必要以上 保管하지 말 것.

4) 油류貯藏室의 境遇 冷凍器附近에는 “성냥 및 라이타” 등의 煙대를 嚴禁할 것.

5) 生 고무 및 코오드系 貯藏 場所에서는 絕對로 禁煙할 것.

6) 油類 貯藏고 周圍에는 必要없이 接近을 一切 삼가해야 하며 특히 “성냥 및 라이타”의 持參은 삼가할 것.

7) 吸煙은 會社가 定한 一定한 場所에서 吸煙을 할 것.

8) 防火用 機器는 必要規定量을 確保할 것.

勿論 本事項은 어느 會社의 境遇나 經營曆의 業務 企劃事項中的 하나라 보겠다. 하나 消火器의 境遇 一段 使用하면 消火用 Gas(CO₂ 泡沫等)가 消耗됨으로 即時 補完해 놓을 수 있는 切實한 訓練이 必要하다 하겠다.

以上과 같이 우리 周邊에서 恒時 關心을 두고 살펴 봐야 할 몇가지 項目들을 들면서 最高經營者인 社長으로부터 最下 作業者(특히 오늘 入社한 從業員의 境遇)에 이르기까지 이 點에 對해 깊은 關心을 가져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또한 記述하고 싶은 心情이다.

結果적으로 본다면 安全이란 個個人을 위해서 얼마나 必要한 것인가를 再考케 하기위해 文章에 소질없고 또한 技術者의 一員인 筆者는 罪悚스러운 筆을 남기면서 寄稿의 機會를 만들어 주신 協會에 深甚한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